수산물 매출 회복세 … '생물생선' 소비 살아났다

1~3월 20%↑ … 갈치·가자미·꽃게 등 신장세

어획량 증가로 가격 낮아져 … AI 파동도 영향

최근 생물 생선 소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21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 수산코너 직원이 생물 갈치를 진열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일본발 방사능 유출사고 여파로 수년간 주춤했던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방사능 확산 우려가 줄고 주요 생선 어획량이 늘면서 생물 생선의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던 생물 생선 매출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3월 생물 생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달 들어서는 10%가량 증가했다.

이달 1~16일 생물 생선 매출 상승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갈치 56.8%, 가자미 41.5%, 대구 11.6%, 조기 11.6% 등으로 모든 품목에 걸쳐 고른 신장세를 보였다. 또 꽃게 등 갑각류와 오징어 매출도 각각 55%, 22% 늘었다.

실제로 광주·전남 이마트 매장의 1~3월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갈치 32.6%, 조기 12.4%가 늘었다. 같은 기간 오징어와 낙지, 문어 등 해물 연체류 매출도 4% 이상 증가했다.

출하량도 늘어 소비심리를 자극했다. 올해 1~3월 전국 수협 위판장 및 공동어시장의 위판 실적 집계 결과 생물 생선 시장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갈치는 지난해 4271t 대비 배가량 늘어난 9699t이었으며 최근(4월1일~16일) 평균 도매가격(5kg 상자/상품 기준)은 지난해 대비 10% 가량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생물 생선의 대체 품목으로 인기를 끌었던 반건(半乾) 생선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 대조를 이뤘다. 1~3월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고, 이달 들어서는 매출이 71.9%나 감소했다. 반건 생선이란 생물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해풍에 반쯤 건조시킨 상태의 제품으로 반건 가자미, 반건 임연수어, 반건 고등어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2010년 이후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갈치, 고등어 등의 생물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연중 물량 공급이 원활한 반건 생선의 인기가 지속됐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일본 원전 방사능 수 유출 이후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물 생선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어획량 증가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파동도 수산물 소비를 살아나게 했다는 분석이다. AI 여파로 닭, 오리 상품매출이 줄자 이에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닭, 오리고기 등 가금육 매출은 지난해 12월 대비 최대 60%까지 감소했으며 특히 닭고기는 나들이 철을 맞아 간식용으로 많이 찾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 가격이 올라 소비가 부진한 상태다. 생닭은 1kg 한 마리당 6000원대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500g당 1만원대의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가계총처분 가능소득 OECD 최하위

기업과 불균형 심각

1인당 GNI 3만불 육박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부(富)가 옮겨지는 경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했다. 매년 16.1%씩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로, 매년 평균 5.3%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를 웃돈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만6000달러, 올해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제성장에 원화가치 상승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000달러 수준이다. PGDI는 4대 사회보험, 세금 등을 빼고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작년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18~21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많이 걷어 정부가 재분배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17위인 에스토니아를 빼고서는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연합뉴스

지역 상장사 연봉 1000만~1350만원 낮다

〈전국 평균대비〉

광주 4966만원 전국 8위, 전남 4595만원 12위

재벌닷컴·금감원 조사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전국 평균에 비해 1000만~135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13개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본사 기준 소재지별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광주는 14개사·4966만원으로 전국 8위, 전남은 12개사·4595만원으로 전국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울산은 26개 기업, 6881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울산은 지난해에도 직원 평균 연봉이 7020만원으로 1위였다. 경기 지역 상장사(472개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6662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는 2012년보다 상장사 수(443개)와 직원 연봉(5235만원)이 모두 증가했다.

경북(55개사)이 6396만원으로 3위, 경남(77개사)이 6134만원으로 4위였다. 서울은 상장사 수가 67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직원 평균 연봉은 5855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69개사·5557만원), 제주(4개사·5391만원) 순이었으며 대구(48개사·4861만원), 강원(13개사·4704만원)이 광주의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충북(47개사·3587만원)이었다.

전국 상장사 직원 평균 연봉은 5959만원으로 조사돼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직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1000만원 가량 낮게 받았으며 울산에 비하면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상장사 임원 연봉은 서울이 평균 3억287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1억702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원 연봉은 서울에 이어 울산(3억1233만원), 경남(2억9482만원), 경북(2억7033만원), 경기(2억6635만원) 순이었다. 광주는 2억2657만원으로 임원 평균 연봉이 2억원대를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 페루서 냉장고 홍보 지난 14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동부대우전자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소비자들이 '더 클래식' 콤비냉장고를 구경하고 있다. 광주에 생산기지를 둔 동부대우전자는 페루의 양문형냉장고 및 드럼세탁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추픽추' 세탁기 등 지역특화 제품으로 가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999.22(-5.06)	▼ 569.28 (-1.95)	2.89%	▲ 1039.00원(+1.60)

북구지역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추진

광주디자인센터

(재)광주디자인센터가 광주 북구지역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북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사업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디자인센터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북구지역에서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1~5인의 공동사업자, 예비창업자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창업기자재 지원과 창조카페 이용,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062-611-517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